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우재영	소속(학부/과)	소재디자인공학전공
파견 학기	2018 2학기		파견 국가	리투아니아
파견 대학	Vilnius Gediminas Technical University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처음에는 외국에서 사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TV에서 유럽 여행가는 프로그램들을 보며 언젠가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buddy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연히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의 얘기를 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흥미가 생겨 2018-2학기 교환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살아보기도 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영어 회화 실력도 늘리고 싶었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리투아니아에는 중고샵이 많으므로 너무 많은 옷보다는 한국 음식을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매달 모든 옷이 2~3유로 하는 날이 있어서 많은 옷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숙사에서 한인 마트까지는 거리가 멀어서 친구와 함께 가서 공동으로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기숙사는 보증금이 150유로에서 300유로로 올랐으며, 기숙사 1층 데스크에서 매달 초에 그 전달 기숙사비 납부서류를 받아 iki의 lituvos pastas(우체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한국에서 드는 것보다 현지에서 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민국에 제출할 조건에 맞는 보험을 한국에서 들려면 비싸지만 현지보험은 한 학기에 보통 1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미리 여행하시고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면 현지에서 보험을 드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7-2학기 양정일 선배님의 보고서를 보시면 정확한 위치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는 키세스 항공을 통해서 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시고 나중에 바꾸실 예정이면 키세스 항공에서 편도 항공권을 사시길 추천합니다. 왕복으로 끊으시게 되면 변경수수료가 150유로고 차액도 지불하셔야 하므로 편도 항공권을 사시길 추천합니다. 또 짐은 돌아가시기 전에 폴란드 우체국에서 부치시면 저렴한 값에 한국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겨울에는 매우 추워서 방한화가 필수입니다. 한국에서 히트텍이랑 두꺼운 등산 양말 잔뜩 챙겨 오시길 바랍니다. 여기 양말이랑 수건은 질이 좋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넉넉히 준비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 학기에 오시면 추워지기 전에 근교 도시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먼저 여행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무뚝뚝하게 보이지만 마트에서나 어디서든 먼저 인사하시면 친절하게 대답해주십니다. 리투아니아는 지리적 위치가 좋아서 버스 타고 폴란드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을 다녀오실 수 있으시며,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도 저렴한 값에 항공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저는 사진술, 체육, 리투아니아어, 영어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마다 건물이 다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물끼리의 거리도 먼 편이기 때문에 이동 시간까지 잘 따져서 시간표 짜시길 바랍니다. 물론 조금 늦어도 교수님께서 이해해주십니다. 제가 자주 듣는 건물은 시내에 있는 건물이라 가는데 버스 타고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체육 수업은 선택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유도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힘들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좀 적응되면 너무 재밌고 근육도 붙기 시작합니다. 저는 처음에 포기하려다가 선생님이라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끝까지 다녔는데 나중엔 너무 재밌어서 관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도 수업 추천합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겨울학기에 기숙사에서 머무시면 정말정말 좋습니다. 꼭 전기장판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기숙사비는 만약 8월 중순에 오셨다면 9월 초에 (머문 날짜 x 5유로) 기숙사비 납부서를 1층에서 받아가서 내시면 됩니다. 생활비는 기숙사비 제외하고 30만원이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훨씬 적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평균 30만원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는 외국인 친구랑 살면 문화 차이 등의 이유로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 한국분을 추천합니다. 저는 한 학기 동안 안 맞는 외국인 친구랑 써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2주마다 culture evening이라고 3~4 국가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펍에서 이루어지며, 끝나면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하면서 노는 분위기입니다. 소개는 각 나라별로 20분 정도 하며 간단한 음식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팀은 불닭볶음면을 준비해서 소개했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미리 면을 삶아 얼음물에 담가 놔습니다. 그 상태로 펍에 가져가서 소스만 섞어서 발표했습니다. 이렇듯이 요리할 공간이 없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초반에는 멘토가 많이 도와주고 멘토's day라고 다 같이 uno park 가서 같이 놀기도 합니다. 초반에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 만난 친구들이 거의 한 학기 내내 만나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여행을 하다보면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도 일본, 중국 등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무례하게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웃으며 대하면 한국사람을 쉽게 보는 경향도 있고 그런 무례한 질문을 당연하다는 듯이 또 물어보니 단호하게 대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시지 마시고 한 학기 동안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처음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고, 리투아니아에 도착하는 순간 긴 이동 시간에 대한 피로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하다 보니 외국에서 사는 일이 제 생각만큼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로는 한국음식이 그리기도 했고, 불편한 인터넷 때문에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영어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통의 불편함도 많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이다 보니, 각 나라마다 억양이 달라서 알아듣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을 계속할수록 소통의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고 외국 생활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여러 음식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 회화도 어느 정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외국에서 사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생겨 한 번 더 외국에서 살 수 있게 된다면, 흔쾌히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